



태 국

생산과잉으로 생산억제 계획

태국은 종전부터 계란의 생산과잉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도 주당 국내 수요 2천5백만 개 보다 많은 2천7백~2천8백만 개가 생산되고 있고 개당 생산코스트는 2바트인데 반해 판매가격은 1.8바트로 수익성이 없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국가계란위원회(NEBC)는 생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산억제책을 세우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 ① 채란계를 줄이기 위해 10주간 이내에 부화수수를 10% 감소시킨다.
- ② 시장 수요에 맞게 생후 70주 이상의 채란계를 도태해 현재의 3천6백만 수에서 2천4백만 수로 줄인다.
- ③ 종계 수입수수를 4~5% 감소시켜 내년의 생산억제로 연계한다.(AW)

미 국

아틀란타 국제양계박람회 과연 이대로 좋은가?

아틀란타 국제양계박람회(이하 IP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주최측은 관람객 유치방안으로 사료박람회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와 남미에서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반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저조 했으며 더욱 큰 문제는 북미에서 저조한 참여에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작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할 미국업계의 비협조적인 자세이다. 일례로 직원들은 자신의 휴일을 사용해서 자비를 들여 박람회를 참여하라고 하는 실정이니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다.

미국이 IPE에 대한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이전의 IPE 국제적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위원회는 단지 사료박람회와 연계하는 등의 눈에 보이는 사항 외에도 내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아틀란타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에도 시내의 높은 물가, 지저분한 거리 환경, 일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편의시설 등 장애요소 또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실

정이다.

이미 모래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IPE가 국제적 양계박람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IHP 칼럼 중에서)

영 국

IBV 백신개발

영국의 양계산업에 있어 IBV로 인한 손실은 연간 2,26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IAH(동물보건본부)에서는 인터베타사와 함께 IBV에 면역을 가지는 pre-hatching prototype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리버스 제네틱(reverse genetic)시스템을 사용하여 부화기 내부에서 부화하기 전에 면역을 유발시킬 수 있다. 실험결과 맹독의 M41종에 노출된 병아리에서 100% 방어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화를 위해 보완작업이 진행중에 있다.(IHP)

태 국

수출은 증가, 이익은 감소

태국은 2007년도 닭고기 수출을 6.9% 증가한 31만톤(열처리 닭고기), 바트로는 93억바트(미화 25억 8천만달러), 6.7%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업자는 원자재 상승과 국내 화폐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베타고 그룹 부사장 Nopporn Vayuchote는 2006년에 옥수수 가격이 30% 증가하여 kg당 7바

트(미화 0.19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수출가격은 톤당 3,000달러(열처리 닭고기)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AP)

아르헨티나

곡물생산량 대폭증가 예상

아르헨티나 SAGPyA는 2월 21일 2006/07년도의 주요곡물 생산예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옥수수의 생산량은 과거최고를 기록한 1997/98년도의 1,936만 톤을 웃도는 2,100~2,200만 톤이 예상된다. 라팜파주와 브에노아이레스주 북부 등 작부면적이 증가돼 전체면적의 99%의 작부작업이 끝났다. 그리고 대두도 2005/06년도의 4,050만 톤을 넘는 4,250~4,450만 톤의 신기록이 예측된다. 기상조건이 부적합해 소맥 등의 곡물의 작부 취소 지역이나 파종시기의 수분 부족으로 옥수수 작부를 취소한 지역이 대두로 바꾸는 등의 요인으로 콜드바주 남부, 라팜파주 북부, 브에노아이레스주 서부 등에서도 작부면적이 증가했다.

곡물의 국제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옥수수의 수확량이 과거최고 예상에 대해 MAIZAR의 기어 회장은 “옥수수의 작부면적 증가는 현재의 수출가격 상승 호기를 맞은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며, 수확량의 대폭 증가로 국내가격 인하 가능해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가격 상승의 염려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MAIZAR의 시산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에서 에타놀 생산을 할 경우 2백만 톤의 곡물 약3억 달러에서 80만m³의 에타놀과 70만 톤 이상의 곡류증류박(DDGS)가 산출되어 각각의 수출액은 4억4천만 달러, 7천7백만 달러가 된다고 한다.(AW)